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 정책과제 몽골 현지조사

## I. 출장 개요

-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수원국 (몽골) 현지 사례조사 및 유관기관 면담 실시

###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센터장/연구위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몽골 (울란바토르 일대)	2018. 3. 13. ~ 2018. 3. 16. (3박 4일)
원지은 위촉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3. 주요 내용

- 농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 추진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 현황 파악
- 몽골정부 관계자 및 현지 공관 면담을 통한 기관별 강점, 비교우위 발굴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 면담자	수행 업무
1	3/13 (화)	나주	인천		◦ 이동
		인천	울란바토르		◦출국(이대섭, 원지은) ◦KE 5867
2	3/14 (수)	체	체	◦KAPEX Academy 참가자 면담	◦KAPEX 사업(농식품부) 관련 면담 및 현황 파악
				◦몽골 산림청 사업단 면담 ◦몽골 자연환경부 방문	◦ 사업단 활동현황 및 산림청 사업 현황 파악 ◦카운터파트 기관 면담
◦몽골 중앙수의연구소 방문	◦농식품부 사업 현황 파악 ◦카운터파트 기관 면담				
4	3/16 (금)			울란바토르	인천
			◦입국(이대섭, 원지은) ◦KE 868		

4. 주요 회의 및 조사내용

A. KAPEX Academy 참가자 면담

□ 방문일시: 2018년 3월 13일 오후 7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Enktuya Tserendorj(중앙수의연구소),  
Zolzaya Jargalsaikhan (농업경공업부)

□ 주요 논의 내용

- KAPEX 프로그램은 연수생들에게 한국 농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 현장학습,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하면서, 연수생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함.
- 연수생들은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을 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 관련 분야 법률안에 연구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후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추가로 협력을 원하는 부문으로는 농업기술 교육을 들었으며,

특히 한국의 채소작목 재배 관련한 내용을 예시로 들음. 한편, SCVL 소속의 연수생은 KOICA를 통해 식량안보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검토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함.

## B. 몽골 산림청 사업단 면담

□ 방문일시: 2018년 3월 14일 오전 10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진선필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 주요 논의 내용

-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1996년도 한국의 황사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에 포함되어 몽골정부의 30년 조림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음. 그 결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몽골 정부에서 작성한 UNCCD 사막화방지 보고서에 언급된 성과 중 상당부분이 한국정부의 기여분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 정책 및 계획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침.
- 실제로 산림청 그린벨트 조림지에 거주하는 27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중 88%가 산림청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알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 이번 년도부터 진행되는 후속사업은 조림지역 아이막 내 산림경영팀이 충분한 관리역량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조림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조림지 이양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됨. 이를 위해 지역 내 산림공동체를 조성하고 혼농임업, 약용작물 및 비타민나무 재배, 생태관광 장려 등 자체 수익 모델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지역 공동체 사업 관련 정치적 갈등요소 해결이 당면과제임.
- 도시림 조성의 경우 한국의 산림조합중앙회에 의해 설계 완료되었으며, 5년간 40억 예산을 들여 91개 수종으로 울란바타르 지역 내 도시숲을 조성 예정임. 이 과정에서 일정 면적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서울, 수원, 고양시, 남양주 등)를 유치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주어진 조림지역을 채우기 위해 시도 중임.

## C. 몽골 자연환경부 방문

□ 방문일시: 2018년 3월 14일 오후 2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Dorjsuren Ariuntuya 국제협력부 국장대행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 환경부는 재작년 정책개정으로 인해 혼농임업이 몽골 산림정책의 주요부문 중 하나로 부상하였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그린벨트 조림사업이 이러한 정책의 이행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음을 언급함. 특히 달란자가드 조림지에서의 혼농임업 경험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린벨트 조림 사업 이외에도 한국과 몽골은 국회의원 나무심기 행사, 도시숲사업, 북부산림 대량벌채지역에 대한 복원사업 및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림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몽골에 전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가 조림정책 관련 몽골 환경부의 향후 중점분야는 조림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관을 위해 관련 NGO 및 기구를 신설하는 것임. 특히 현재 산림경영팀이 없는 지역에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기관을 통솔하여 사업 관련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희망하고 있음.
- 몽골 환경부 측에서 인식하는 그린벨트 조림사업의 장점으로서는 황사방지, 조림지 내 농림업 확장에 따른 국가 산업구조 다양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사막화(방목지역 황폐화) 방지, 조림지 내 생활기반 마련으로 인한 도-농간 이동률 감소 등이 있음.
- 또한 조림사업 분야의 규모 확장으로 인해 국가 내 양묘장, 관정, 묘목판매 등과 관련한 전문조직이 생겨나 정부 및 기타 공여기관의 위탁사업을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해당 부문과 관련한 국가 내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몽골 환경부에서 희망하는 중점 협력분야는 역량강화, 산림경영사업 증진, 혼농임업, 산불방지대책 등이 있음.

#### D. 몽골 중앙수의연구소 방문

□ 방문일시: 2018년 3월 15일 오전 10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Tserenchimed Asinnokhoi 수석 기술 관리자, Ganzorig Basan 국

## 장

### □ 주요 논의 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크게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인 M-AIMs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Sajinmoyo이지만, 현재 두 프로그램 모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우선 웹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아직까지 정보입력이 미흡하며,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몽골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몽골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농촌지역의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 및 활용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몽골 중앙수의검사소에서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2017년 해당사업 종료 이후 협력이 중단된 상태임. 몽골 중앙수의검사소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예산 획득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유지보수 관련, 기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 업체가 몽골 업체에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으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업체 측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임.

## E. 몽골 기술연구소 방문

□ 방문일시: 2018년 3월 16일 오전 10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Batgerel Baramsai 소장 외 3인

### □ 주요 논의 내용

- 현재 육가공, 유가공 공장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은 공장 가동으로 인한 이윤으로 충당함. 하지만 추가 시설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을 마련하기엔 불충분한 실정임.
- 유가공공장의 경우, 기존에 한국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시설 외에 2017년 ADB 예산으로 추가 공장시설을 건축함. 기존의 공장설비에서는 하루 500L의 우유 가공 용량으로 우유, 요구르트 정도의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설비에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한 달 평균 커드 20T, 요구르트 2T 생산). 생산된 제품은 주로 케이크 공장, 유치원 등에 공급됨.
- 육가공 공장의 경우, 주로 햄, 소세지, 만두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루 100kg의 생산용량을 지님(한 달 평균 소세지 1T 생산). 생산된

제품은 기술연구소가 있는 학교의 구내식당에 공급되거나, 일반 기업에 대한 주문생산물량으로 거래됨.

- 당초 해당사업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고안된 모델이라기 보단, 선진기술 및 시스템을 몽골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추가설비에 대한 투자를 위해 HACCP 인증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및 부가가치창출을 시도하고 있음. 현재 독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으며 9-10월 중 인증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이외에도 현재 인력수급의 문제로 연중 약 7개월만 운영되고 있는 육가공공장을 연중 운영하여 수출제품 생산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기계 부속품의 경우 대개 중국산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지 않으며, 시설정비를 위한 정비공이 상시 고용되어 있음. 다만 우유 가공 후 패키징에 사용되는 우유병의 경우, 사업수행 시 한국에서 주문한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중국제품을 사용 중이나 품질차이로 인해 한국 제품 재주문을 희망하고 있음.

#### F. 몽골 KOPIA 사무소 방문

- 방문일시: 2018년 3월 16일 오후 2시
- 방문자: 이대섭, 원지은
- 면담자 : 최만영 KOPIA 몽골사무소장, Odegerel Dorjgochoo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국장, Gombo Gantulga 몽골생명과학대학 부총장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 KOPIA 사무소의 카운터파트 정부기관은 농업경공업부였으나, KOPIA 사무소의 사업특성상 몽골의 과학연구정책 관련 연구소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문화과학체육부로 변경됨.
  -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는 KOPIA 사무소 개소 이후로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NGO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KOPIA 사무소가 공적 지위인 ‘국제협력기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약을 추진 중에 있음.
  - 몽골 정부는 기술에 기반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몽골 맞춤형 기술 보급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KOPIA 사무소의 역할이 큼.
  - 기술개발은 장기적, 단계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몽골정부는 지속적인 성과를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해 KOPIA 사무소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농업 기술 관련 인적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음.

- 몽골농업생명과학대학은 몽골 농업부문의 유일한 대학교육시설로, 6개 학과와 4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약 1만 명의 학생 중 30%가 대학원생에 해당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협력사업으로 대학 캠퍼스 내 Agropark를 조성하고 학과연구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KOICA-UNFAO 협력 사업으로 식량 안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GAP 사업을 수행함.
- 몽골 KOPIA 사무소와는 비육우사업과 시범포조성을 통한 방울토마토 품종 선발 및 보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몽골의 경우 토양과 기후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겨울철 혹한과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기술 적용과 지식 전수 교육이 우선시 됨.
- 현재 및 향후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KOPIA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임.

## II. 출장 사진



몽골 산림청 사업단 면담



몽골 자연환경부 방문



몽골 중앙수의연구소 방문



몽골 기술연구소 방문



몽골 기술연구소 육가공/유가공 공장 방문



몽골 KOPIA 사무소 방문